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김 지 영[†] 신 민 섭 권 석 만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이들의 어린 시절 양육경험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을 탐색하기 위해 370명의 대학생에게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의 각 하위차원을 평가하는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와 편집척도, 우울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편집 성향은 주변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는 타인호의성 차원, 자신을 나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보는 자기호의성 차원, 자신을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는 자기완고성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어린 시절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특성 및 부모에 대한 표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32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집척도와 과거 부모에 대한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형용사 평정형,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학대나 과잉간섭, 비밀관성 및 방치 요인이 편집 성향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과거 부모에 대한 표상의 경우 편집성향자들은 어린 시절에 나쁘고 적대적인 부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편집성 성격성향, 자기 및 타인 표상,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지 영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FAX : 02-744-7241 / E-mail : morie02@hanmail.net

편집증의 기저에는 부정적 자기개념 또는 낮은 자존감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여러 이론에서 제안되었으며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이훈진, 1997; 이명원, 1999; Cameron, 1963; Kinderman, 1994; Meissner, 1986).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피해망상 환자들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자극들에 민감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망상이 근본적으로는 우울증과 유사하게 부정적 자기표상과 관련되지만, 우울증이 부정적 자기표상에 그대로 머무르는데 비해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방사적 인지편향을 통해 자존감을 의도적으로 증진시키려 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 적대적이라는 인지도식과 부정적 타인표상을 확증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이처럼 편집증과 우울증 모두 부정적인 자기표상 및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하지만, 선행 이론들을 살펴보면 우울증과는 구별되는 편집증만의 독특한 자기표상이 시사되고 있다. Millon(1996)에 따르면, 편집성 성격장애자들은 상당히 경직되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과도하게 또는 비현실적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에 집착한다고 한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넣고 조종, 통제하려는 욕구가 높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려 하고 고집이 세다는 점(Akhtar, 1990; Meissner, 1978; Polatin, 1975)에서 특징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성 성격자들의 이러한 자기표상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지 못했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자

기개념 측정치 자체의 제한점으로 인해 상기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자기 및 타인 표상의 하위 차원을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으로 구분한 질문지(권석만, 2002)를 사용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못한 편집성 성격자들의 독특한 자기표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표상의 하위차원 중 완고성 요인이 편집성 성격자들의 타인을 통제, 조종하려는 욕구나 자기결정권에 집착하는 경향, 완고하고 경직된 성격 구조 등을 반영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고성이라는 측면 외에 호의성이나 사교성, 유능성 차원에서도 편집증과 우울증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우울증이 자기표상의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차원과 모두 부적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한편, 편집증은 세 차원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나쁘고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호의성 차원과 더 많이 관련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일례로 정신분석적 접근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자들이 '투사(projection)'를 통해 타인을 적대적 악의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투사라는 방어적 기제에 근거해볼 때 편집성 성격장애자들이 타인을 적대적으로 보는 만큼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나쁘고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타인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역시 여러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서 제안되었다(이훈진, 1997; Beck & Freeman, 1990; Klein, 1932). 이들의 적대적이고 부정적 타인 표상이 편집 성향을 확증하고 악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집성 성격향자들의 타인 표상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타인에 대한 표상은 피해망상 집단의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의 결과(Kinderman & Bentall, 1996)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거나 자기개념 질문지의 내용을 단순히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대한 지각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된 타인개념 질문지를 통해 연구되었을 뿐이다. 편집증에 대한 이전 문헌들(Cameron, 1963; Klein, 1932과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 기준에서 강조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편집성 성격자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학대, 착취하려는 가해자라고 인식하며 스스로를 이에 대한 희생자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자 하는 적대적이면서도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동적인 타인 표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이 자신의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 1에서는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이 자신과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표상의 여러 하위 차원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편집성 성격성향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 우울성향자와는 어떠한 유사점 및 차이점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편집성 성격자들이 보이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타인 표상이 초기의 가족관계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형성,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이론적 접근들에서 제기되었다. 편집증의 형성 및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린 시절의 적대적인 양육 경험인데,

Cameron(1963)은 편집성 성격이 근본적인 신뢰 부족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초기 유년기 동안의 적대적인 양육 경험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아동을 지나치게 처벌하거나 학대할 경우 아동은 이런 가학적인 태도를 내면화하여 자신과 타인을 향해 표출하게 되고, 그 결과 지나친 불신과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Pretzer와 Beck(1996)은 편집성 성격 장애의 발달적 배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사례 분석을 통해 편집성 성격자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바깥 세계는 믿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의심과 경계를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하며 아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속이려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상도 언급되었다. 이상의 설명들로 볼 때, 가혹한 처벌과 학대와 같은 양육경험이 편집증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특성은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와 관련된 양육경험이다. 편집증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고, 심리적 요인 중에서 발달적 문제의 역할을 지적한 Fenigstein(1994)은 권위주의적이고 지배적인 가족 분위기가 편집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편집성 성격장애를 여러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Millon(1996)에 따르면, 강박적 편집형(paranoid-compulsive)의 경우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처벌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쓰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관되지 못한 양육경험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기지가 되지 못할 경우에도 편집성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되었다(Auchincloss & Weiss, 1992; Winnicott, 1958). Blum(1980, 1981)은 특히 대상항상성 발달과 관련하여, “변하기 쉬운 대상”과의 경험으로 인해 따뜻하고 일관된 어머니상을 내재화할 수 없게 되면, 이후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종종 박해자라고 믿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Millon (1996) 역시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만과 초조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편집성 성격장애 중 불평적 편집형(paranoid-negativistic)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학대나 과잉간섭, 비밀관성과 같은 요인이 편집성향의 발달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양육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하나의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형성되는 바, 편집성 성격자들의 과거 부모에 대한 표상의 내용 역시 편집 성향과 중요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시사된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정적이고 파괴성을 지닌 나쁜 어머니상을 형성하게 되면 어머니를 비롯하여 타인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Klein (1932)의 설명에 따라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어떠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여러 이론적 접근들이 편집성 성격 형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가정 환경이나 학대적인 부모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를 경험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부족한 바, 연구 2에서는 실제 편집성 성격자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행동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이러한 양육특성과 편집성향이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연구 1: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의 특성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은 자신을 나쁘고 차가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거나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호의성 차원, 사교성 차원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자율성과 독립성에 집착하거나 주위 사람을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조종하는 등 고집이 센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에 대한 완고성 차원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은 타인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호의성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이 언제든지 자신을 착취하거나 속일 수 있으며, 아무 때나 이유도 없이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공격자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 타인에 대한 유능성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 1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 1. 편집성향은 자기에 대한 호의성 사교성 차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완고성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예언 2. 편집성향은 타인에 대한 호의성 차원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유능성 차원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예언 3. 편집성향은 자기 및 타인 표상에서 우울성향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특히 호의성이나 완고성 차원이 편집성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우울성향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기 및 타인 표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남자가 210(56.8%)명, 여자가 160(43.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전체 20.9세로 그 범위는 18세에서 30세까지였다.

측정 도구

편집 척도(Paranoid Scale; PS)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a)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 과 Erbaugh (1961)가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21개 항목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8이며, 반분신뢰도는 .91로 보고되어 있다.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 (Self & Others Representation Inventory; SORI)

이 척도는 권석만(2002)이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어머니, 아버지, 주변사람들과 같이 중요한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내용을 평가하고 이러한 표상의 주요 차원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각 대상에 대해 4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1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호의성(가령 '선한' '좋은' '따뜻한'), 사교성('사람을 잘 사귀는' '능동적인'), 유능성('유능한' '똑똑한' '성공한'), 완고성('고집스러운' '지배적인')이라는 네가지 주요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아버지의 경우에만 완고성을 제외한 3요인구조가 발견되었다. 4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자기 표상의 경우 .76에서 .82, 어머니 표상의 경우 .71에서 .87, 아버지 표상의 경우 .78에서 .85, 주변사람들 표상의 경우 .58에서 .73으로 나타났다.

결과 및 논의

편집성향 및 우울성향과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간의 관계

편집척도(PS), Beck 우울 척도(BDI), 그리고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SORI)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의 경우 자기, 주변사람들, 어머니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각 하위차원을 평정하게 한 점수를 반영한 것이다.

우선 편집성향과 우울성향의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2에 편집, 우울 성격척도와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 척도의 하위차원 점수간의 상관관계수, 부분상관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편집척도와 우울척도 모두 자기에 대한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차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기에 대한 완고성 차원의

표 1. 연구 1에 사용된 질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편집척도(PS)	44.71	10.24
Beck 우울 척도(BDI)	9.62	7.88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SORI)		
자기 표상		
호의성	38.23	4.97
사교성	33.22	6.92
유능성	29.85	4.44
완고성	16.08	2.59
주변사람들 표상		
호의성	46.36	4.81
사교성	29.79	3.68
유능성	19.18	2.17
완고성	27.89	3.31
어머니 표상		
호의성	55.97	6.20
사교성	36.48	6.81
유능성	25.90	3.46
완고성	10.04	2.11
아버지 표상		
호의성	43.54	5.15
사교성	35.10	6.86
유능성	46.11	7.20

경우 편집척도와는 정적 상관관계수가 나타난 반면, 우울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은 편집성향과 우울성향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편집척도와 우울척도 모두 주변사람들에 대한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차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점으로 볼 때, 편집성향과 우울성향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여기서 편집성향과 우울성향이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의 세 차원 즉 호의성, 사교성, 유능

성과의 상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들 상관계수들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Cohen & Cohen, 1983)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 표상의 유능성 차원에 대한 편집척도와 우울척도의 상관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t(365)=2.567, p<.05$, 주변사람들 표상의 호의성 차원에 대한 두 척도의 상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364)=2.334, p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편집성향과 우울성향이 모두 부정적인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자기표상의 경우에는 자신을 열등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우울성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주변사람들 표상의 경우에는 타인을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편집성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좀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편집척도와 우울척도간의 .436의 높은 상관($p<.01$)을 고려하여 각 척도를 상호통제한 상태에서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간의 부분상관을 구하였는데(표 2), 분석 결과 우울성향이 편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을 때 자기에 대한 완고성 차원이 편집척도와 .01 수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우울성향을 통제하기 전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편집성향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을 때 역시 자기에 대한 완고성 차원이 우울척도와 .05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편집성향을 통제하기 전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집성향자들이 고집이 세고,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지배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우울성향자들의 자기 표상과 구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언 1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바, 편집성향자들은 스스로를 나쁘고 차가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우울성향자와는 달리 자신의

표 2. 편집척도 및 우울척도와 각 표상의 하위차원간 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편집척도	우울척도	편집척도 ^a	우울척도 ^a
자기 표상	호의성	-.356**	-.343**	-.224***	-.218***
	사교성	-.201**	-.302**	-.066	-.247***
	유능성	-.326**	-.453**	-.130*	-.381***
	완고성	.091	-.071	.148**	-.114*
주변사람들 표상	호의성	-.430**	-.263**	-.352***	-.093
	사교성	-.229**	-.199**	-.147**	-.124*
	유능성	-.281**	-.212**	-.216***	-.122*
	완고성	.014	-.070	.047	-.086
어머니 표상	호의성	-.296**	-.166**	-.212***	-.020
	사교성	-.085	-.170**	.034	-.150**
	유능성	-.109	-.108*	-.053	-.069
	완고성	.165**	.025	.173**	-.043
아버지 표상	호의성	-.241**	-.139**	-.135*	-.043
	사교성	-.170**	-.102	-.147**	-.133
	유능성	-.234**	-.166**	-.114*	-.113*

* $p < .05$ ** $p < .01$ *** $p < .001$

^a 부분상관은 편집척도와 우울척도를 상호통제한 후의 상관임.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고집이나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표상의 하위차원과 주변사람들 표상의 하위차원이 편집성향을 예언해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호의성, 자기호의성, 자기완고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변인투입(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변사람들에 대한 호의성 차원이 편집점수의 16.8%를 설명해 예언력이 가장 높았고($F=71.25, p<.001$), 자기에 대한 호의성 차원과 완고성 차원이 각각 2.3%($\Delta F=9.92, p<.01$)와 2.2%($\Delta F=10.03, p<.01$)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예언변인들이 편집성향을 어떻게 설명해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세 예언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변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는 정도($\beta=-.330$), 자신을 나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보는 정도($\beta=-.206$), 자신을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는 정도($\beta=.155$)의 순으로 편집성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자기에 대한 유능성 차원이 20.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 다른 하위차원들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편집성향과 우울성향을 예언하는 데

있어, 자기 및 주변사람들 표상의 하위차원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자기에 대한 호의성과 완고성 차원이 다른 차원에 비해 편집성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반해, 우울성향의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유능성 차원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편집성향과 우울성향 모두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부정적인 자기개념이나 낮은 자존감이 핵심 요인으로 설명되었으나, 표상의 하위차원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각 성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점이 시사된다. 이는 앞서 상관관계수들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연구 1의 예언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따라서 편집 성향은 주변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는 타인호의성 차원, 자신을 나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보는 자기호의성 차원, 자신을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는 자기완고성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성향은 자신을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유능성 차원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편집 성향과 우울 성향 모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갖지만, 그 평가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편집 성향은 주변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자신 역시도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보는 호의성 차원이 두드러지면서도, 자신을 고집이 세고 지배적이라고 평가하는 완고성 차원 과도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우울 성향과 구별될 수 있었다.

편집성향 및 우울성향과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 간의 상관

다음으로 편집성향 및 우울성향자들의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척도간의 상관과 부분상관을 알아보았다(표 2). 상관분석 결과, 편집성향은 어머니에 대한 호의성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완고성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한편, 우울성향은 어머니 표상의 각 하위차원과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 표상의 경우 편집성향은 각 하위차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성향 역시 부적의 관련성을 보였다. 편집척도와 우울척도간 높은 상관($r=436$)을 고려하여 각 척도를 상호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간의 부분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편집성향은 우울성향이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어머니에 대한 호의성 차원과는 부적 상관을, 완고성 차원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우울성향은 어머니에 대한 사교성 차원에서만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 표상의 경우에도 우울성향의 영향에 관계없이 편집성향은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의 각 하위차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성향은 편집성향의 영향을 배제했을 경우 아버지 표상에 대한 각 하위차원과 부적의 관련성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편집성향자들에게 어머니는 악의를 갖고 있거나 적대적이며, 신뢰할 수 없으면서도 고집이 센 사람으로 시사된 한편, 아버지는 무능하고 이해심이 없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소극적인 나쁜 사람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편집 성향이 타인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음(이훈진, 1997; Beck & Freeman, 1990; Millon, 1996; Pretzler & Beck, 1996)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의미한 타인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러한 편집증적 관점이 그대로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 표상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아버지 표상과는 달리 호의성 차원과 완고성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다른 타인들에 대한 표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밝혀진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의 자기 표상이 호의성 차원과 완고성 차원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본다면, 이들의 자기 표상이 어머니 표상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연구 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지각된 어린 시절 경험의 특성

편집증의 원인에 대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에서는 자기표상이나 타인표상과 관련된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편집증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발달 배경에 관한 설명들이 언급되어 왔다(Fenigstein, 1994; Millon, 1996). 이러한 설명의 요지는 어린 시절에 실제로 위협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편집증적인 태도 자체가 생존에 적응적일 수 있으므로, 편집성 성격자들이 갖게 되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신념은 이러한 양육 환경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이론적 접근들이 이러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가정 환경이나 학대적인 부모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편집성 성격자들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이나 배경에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이론적 설명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행

동의 특성 중에서, 적대적이거나 가혹한 처벌과 같은 학대 요인(Cameron, 1963; Millon, 1996; Pretzer & Beck, 1996), 지배적이거나 지나친 통제와 같은 과잉간섭 요인(Fenigstein, 1994; Millon, 1996), 모순된 말이나 행동과 같은 비밀관성 요인(Auchincloss & Weiss, 1992; Blum, 1980, 1981; Millon, 1996; Winnicott, 1958)이 편집성향과 관련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표상과 관련해서,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이 과거 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이고 지배적인 나쁜 어머니상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Auchincloss & Weiss, 1992; Klein, 1932),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쁘고 적대적이며 권위적인 표상과 관련될 것이라 예측하였다(Freud, 1955; Fenigstein, 1994). 따라서 연구 2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 1. 편집성향은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중에서 학대, 비밀관성,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예언 2. 편집성향은 회상된 발달초기 어머니상에 대한 호의성과 부적 상관을, 완고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아버지상에 대한 호의성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소재 S대학교와 지방 소재 H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남자가 185(57.3%)명, 여자가 138(42.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전체 21.3세로 그 범위는 18세에서 37세 까지였다.

측정 도구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형용사 평정형의 과거버전(Self & Others Representation Inventory-Adjective Checklist)

권석만(2002)이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 문장형을 시간적 효율성, 임상현장에서의 사용 등을 고려해 20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한 것이다. 반응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평가형용사의 반대어를 쌍별로 무선제시한 양방향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형용사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6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후, 채점은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문항들을 합산토록 하였다.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의 문장형과 형용사 평정형의 상관은 .46에서 .8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 지시문에 '어린 시절

(초등학교 입학 이전 및 초등학교 시절)에 지녔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척도의 과거버전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BI)

허묘연(2000)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개 차원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

표 3. 연구 2에 사용된 질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편집척도(PS)	45.64	9.64			
어머니 양육행동 애정	16.90	3.95	아버지 양육행동 애정	16.02	4.17
감독	10.73	3.18	감독	8.76	3.14
합리적 설명	12.11	3.19	합리적 설명	11.96	3.45
과잉기대	12.59	4.30	과잉기대	12.50	4.74
과잉간섭	13.09	4.52	과잉간섭	11.50	4.18
비밀관성	6.85	2.01	비밀관성	6.27	1.91
방치	6.37	2.17	방치	7.09	2.44
학대	7.56	2.56	학대	7.01	2.14
어머니 표상 호의성	40.14	5.45	아버지 표상 호의성	27.60	5.03
사교성	26.41	5.27	사교성	26.52	5.61
유능성	18.40	2.76	유능성	34.11	5.65
완고성	7.50	1.92			

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방치'는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정의된다. 요인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8에서 .86으로 보고되었다.

결과 및 논의

편집성향과 어린 시절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간의 관계

편집성향자들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지각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편집척도와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차원간 상관을 알아보았다(표 4). 상관 분석 결과, 편집성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행동 모두에서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방치, 학대 요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예언대로 과잉간섭, 비일관성, 학대 요인이 편집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잉기대나 방치 요인도 편집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간주되는 애정이나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은 요인은 편집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가 과도한 통제나 처벌을 가하는 등의 지나친 간섭을 했거나, 모순된 말과 행동을 보이는 등의 일관되지 못하게 양육했거나 또는 적대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학대를 가했던 경험이 편집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이 간접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4. 편집척도와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과거 부모 표상 척도의 하위차원간 상관계수

		편집척도			편집척도
어머니 양육행동	애정	-.167**	아버지 양육행동	애정	-.138*
	감독	-.107		감독	-.116*
	합리적설명	-.156**		합리적설명	-.140*
	과잉기대	.210**		과잉기대	.181**
	과잉간섭	.289**		과잉간섭	.255**
	비일관성	.248**		비일관성	.294**
	방치	.257**		방치	.236**
	학대	.225**		학대	.240**
어머니 표상	호의성	-.186**	아버지 표상	호의성	-.149**
	사교성	.002		사교성	-.083
	유능성	.004		유능성	-.166**
	완고성	.092			

** $p < .01$

또한 자녀의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치 요인도 편집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편집성향과 어린 시절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 간의 관계

편집성향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표상을 살펴보기 위해 편집척도와 과거 어머니 및 아버지 표상의 하위차원간 상관을 알아보았다(표 4). 상관분석 결과,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표상 중에서 호의성 차원만이 편집성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예언에서 가정했던 완고성 차원과는 정적인 경향성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편집성향자들이 어린 시절에 부정적이고 적대적, 공격적인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시사한다. 한편 과거 아버지에 대한 표상 중에서 예언대로 호의성 차원이 편집성향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능성 차원도 편집성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표상의 경우 완고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호의성 차원과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면서 포함되었으므로 결과 해석을 위해 편집성향과 관련된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편집성향자들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실패한 무능력자로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적대적이고 고집이 세며 지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이처럼 편집성향은 어린 시절에 나쁘고 지배적인 부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어머니와 달리 신뢰할 수 없고 무능력한 아버지상이 편집성향과 높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부모 표상 간의 관계

추가적으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하위차원과 과거 부모 표상의 하위차원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5는 이들 척도간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인데, 상단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과거 어머니 표상간 상관계수를, 하단은 아버지 양육행동과 과거 아버지 표상간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먼저 편집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던 과거 어머니에 대한 호의성, 완고성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호의성, 유능성 차원을 중심으로 부모 양육행동의 하위차원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어머니에 대한 호의성 차원은 양육행동의 하위차원 중에서 과잉간섭, 비밀관성, 방치, 학대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그 외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나 비밀관된 양육 혹은 방치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나쁘고 차가운 어머니상과 관련됨을 의미하며, 이와는 반대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며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관된 방식으로 양육하는 행동은 좋고 따뜻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어머니상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완고성 차원이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차원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나 통제 또는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게 보이는 양육행동은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어머니상과 관련된다 고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과거 아버지에 대한 호의성 차원은 양육행동의 하위차원 중에서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방치, 학대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는 높은 정

표 5.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차원과 과거 부모 표상 척도의 하위차원간 상관계수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
어머니 양육행동	애정	.554**	.277**	.335**	-.018
	감독	.308**	.223**	.240**	.006
	합리적설명	.454**	.238**	.310**	-.060
	과잉기대	-.051	.170**	.196**	.217**
	과잉간섭	-.178**	.080	.040	.221**
	비일관성	-.214**	.063	.044	.152**
	방치	-.358**	-.177**	-.122*	-.048
	학대	-.368**	-.045	-.051	.081
	아버지 양육행동	애정	.511**	.321**	.448**
감독		.314**	.199**	.324**	
합리적설명		.447**	.272**	.428**	
과잉기대		-.181**	.201**	.148**	
과잉간섭		-.246**	-.065	-.154**	
비일관성		-.216**	-.064	-.130*	
방치		-.363**	-.263**	-.345**	
학대		-.260**	-.116*	-.154**	

* $p < .05$ ** $p < .01$

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유능성 차원은 비일관성, 방치, 학대 차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거나 자녀의 행동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해를 주며,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동 또는 아예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된 상태가 무능력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버지상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녀와 친밀하면서 양육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거나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 또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

하는 행동은 유능하고 똑똑한 아버지상과 관련됨이 시사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편집증만의 독특한 자기 및 타인 표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이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양육 경험과 과거 부모에 대한 표상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편집 성향은 주변사람들을 적대적이고 악한 사람으로 보는 타인호의성 차원, 자신을 나쁘고 차

가운 사람으로 보는 자기호의성 차원, 자신을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는 자기완고성 차원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반면 우울 성향은 자신을 무능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유능성 차원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다.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학대나 과잉간섭, 비일관성 및 방치 요인이 편집 성향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모에 대한 표상의 경우 편집성향자들이 어린 시절에 나쁘고 적대적인 부모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I의 결과 편집증과 우울증 모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갖지만, 그 평가의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나 낮은 자존감이 편집증과 우울증의 공통적인 핵심 요인이며, 두 집단의 차이는 자기개념 외에 부정적인 타인개념이나 방어적 귀인편향에서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선행 연구들(이훈진, 1997; Bentall et al., 1994; Candido & Romney, 1990; Mackinnon & Michels, 1971; Zigler & Glick, 1988)은 구체적으로 자기 및 타인 표상의 여러 하위차원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전 문헌들에서 편집성 성격자들이 외부의 통제에 의해서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과도하게 또는 비현실적으로 자율성이나 독립성,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에 집착하는 점(Millon, 1996; Shapiro, 1965), 대인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넣고 조종, 통제하려는 욕구가 높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려 하고 고집이 세다는 점(Akhtar, 1990; Meissner, 1978; Polatin, 1975), 성격 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성격장애와는 달리 매우 경직되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Millon, 1996)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러한 특성이 경험적으로는 입증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기 표상의 완고성 차원에 반영함으로써, 편집성 성격자들이 자신을 고집이 세고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지배 욕구가 강하며, 이러한 완고한 성향으로 인해 우울성격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 역시 타인의 잘못으로 귀인하거나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인지도식이 견고해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연구 II를 통해서는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방치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 및 과거 부모가 적대적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표상이 편집증의 형성과 관련될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편집증이 부모의 가혹한 처벌이나 지나친 통제, 모순된 말이나 행동과 같은 양육 행동(Cameron, 1963; Millon, 1996; Pretzer & Beck, 1996; Blum, 1981; Winnicott, 1958)과 관련되며, 편집성 성격자들이 과거 부모에 대해 적대적이고 지배적이며 권위적인 표상을 형성(Auchincloss & Weiss, 1992; Klein, 1932; Freud, 1955; Fenigstein, 1994) 했을 것이라는 이론적 접근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최근 피해망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훈진(2004)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편집성 성격성향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증과는 구별되는 편집증의 특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편집증의 형성과 관련되는 어린 시절 양육 경험이나 과거 부모에 대한 표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연구 I과는 달리 연구 II에서는 우울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연구 I에서 밝혀진 두 집단의 특징적인 자기 및 타인 표상이 과거 부모 양육 행동이나 부모 표상과는 어떻게 관련되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

다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과 애착 유형을 살펴본 이훈진(2004)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과잉간섭과 비밀관성이 피해망상 집단의 독특한 특성인 한편 부모의 학대와 방치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의 공통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부모의 양육 행동 및 과거 부모의 표상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두 증상의 형성이나 발달 경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구 II의 결과만을 두고 볼 때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이 편집성 성격장애 이외의 다른 성격장애나 증상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편집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공통점이 많으며 두 성격 유형이 혼합되어 있거나 공존한다는 설명(Kernberg, 1975 ; Akhtar, 1990)에 근거하여,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I)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양육 행동 중에서 특히 애정, 과잉기대와 같은 요인이 편집성향과는 구별되게 자기애성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훈진(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 양육 행동과 관련하여 편집증이 우울증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서, 편집증이 다른 성격장애나 증상과는 다른, 독특한 부모 양육 행동이나 양상과 관련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와 자기보고 질문지의 제약 및 증상자체가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에 미치는 편향을 제한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편집성 성격장애나 피해망상을 설명한 문헌들에서 자기에 대한 완고성 차원과 관련된 언급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새롭게 밝힌 편집증과 자기완고성 차원과의 연

관성은 실제 편집성 성격장애나 피해망상으로 진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일반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편집성향, 우울 성향, 자기애성향 집단으로 확대하되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성향자, 성격장애자, 망상 수준의 환자별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표상과 양육 행동 패턴이 입증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증상이 어떠한 발달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중단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705-726.
- 이명원 (1999). 자기개념의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791-807.
-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381-395.
- 이훈진, 이명원 (2000). 이상심리학 시리즈 편집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khtar, S. (1990).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a synthesis of developmental, dynamic, and descriptive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4, 5-2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uchincloss, E. L., & Weiss, R. W. (1992). Paranoid character and the intolerance of indif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0, 1013-1037.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ew Jersey: Hillsdale.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 3)*. San Diego: Academic Press.
- Freud(1955). *A child is being beaten: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origins of sexual perversions*. London: Hogarth Press.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lein, M. (1932).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Grove Press.
- Meissner, W. W. (1978). *The paranoid process*. New York: Jason Aronson.
- Meissner, W. W. (1986).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New Jersey: Jason Aronson.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olatin, P. (1975). Paranoid states. In A. M. Kaplan & B. J. Saddock(Ed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II*.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Pretzer, J. L., & Beck, A. T. (1996). A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hapiro, D. (1965). *Neurotic styles*. New York: Basic Books.

원고접수일 : 2004. 4. 1.
게재결정일 : 2004. 10. 26.

Mental Representations of Self, Significant Others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ur in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Ji-Young Kim

Min-Sup Shin

Seok-Man Kwo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of mental representations on self and significant others and to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Study 1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mental representations on self and significant others in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For this, 370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Paranoid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 and Self-Others Representation Inventory which is a self-report measure evaluating self, mother, father, and friend in terms of benevolence, capability, sociality, and obstinacy. The results showed that paranoid tendency related closely to the dimension of other-benevolence which is to view other as hostile or bad, to the dimension of self-benevolence which is to regard self as bad or cold, and to the dimension of self-obstinacy which is to consider self stubborn or dominant. Study 2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ived parenting behaviour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n parents in childhood of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As a result, paranoid tendency showed close relation to abuse, overinterference, inconsistency or negligence of the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the representations on parents suggested that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had the image of bad and hostile parents in childhood.

Keywords : *paranoid personality tendency, self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s on significant others, perceived parenting behaviour*